

“영혼의 재난’ 학폭…찍는 내내 고통이었죠”

가해자 부모들은 언제 시도 이야기 자극적으로만 보일까 수위 조절 해서도, 꺾어서도 안되는 폭력 피해 학생들 아픔에 공감 해주길...

“학교폭력은 아이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27일 개봉하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니 부모, 제작 더타워픽처스)를 연출한 김지훈(51) 감독은 영화에 쏟아지는 호평에도 쉽게 웃을 수 없다. 폭력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영화 속 아이의 얼굴이 여전히 마음을 저리게 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피해자의 비극을 은폐하려는 이야기를 담았다. '싱크홀', '타위' 등 재난영화를 선보여온 김 감독은 학교폭력 피해를 "영원히 복구되지 않을 영혼의 재난"이라 규정한다. 20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는 그는 "영혼의 재난을 겪은 아이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

영화는 2012년 1월 현대 일본회복 감독 공연에서 관객에게 충격을 안긴 동명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다. 이를 본 김 감독의 마음에 거대한 파장이 일었다.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원작을 본 후 '만약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가 누군가의 영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를 만든 김지훈 감독은 "5년 전 촬영을 마쳐 낡은 영화가 된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학교 폭력에 관한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제공 | 주마인드마크

혼을 파괴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지옥 같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서도, 또 꺾어서도 안 된다고 영화를 통해 외치고 싶었어요."

출연자 오달수의 과거 성폭력 논란, 감염병 확산 등으로 2017년 촬영을 끝낸 지 5년 만에 영화를 관객에게 내놓게 됐

다. "벌써 낡은 영화가 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컸다.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시대, '니 부모'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발표되는 이야기와 부패해 버리는 이야기. 우리 영화는 후자라

고 여겨요. 피해자의 아픔이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해요."

● "자극적 소재로만 쓰이지 않길 바라"

영화를 만드는 내내 김 감독은 2011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CCTV 영상 속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듯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던 그의 모습.

극중 폭행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를 비롯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웠다.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속에서 관련 장면이 "자극적인 오락거리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수위 조절에 애썼다.

"10대 연기자들에게는 해당 장면을 직접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먼저 설명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듣게 했어요. 부모님들의 돌봄 속에서 촬영하는 것이 더 나은 거라 생각했죠."

김 감독은 관객이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길 바랐다. 그는 영화 속에서 끈질기게 가해자의 부모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전우희)를 언급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건 그들이 미안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건 가해자뿐 아니라 문제를 방치한 기성세대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로 인해 모두의 마음에 작게라도 물결이 일기를 바랍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One pick

오늘 뭐 입지?



손예진

방탄소년단 뷁

화사하게, 때론 힙하게 스타들 옷에 활짝 핀 꽃

이제 완연한 봄이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스타들의 옷에도 '꽃'이 피었다. 봄 시즌마다 트렌드로 빠지지 않는 꽃무늬(플로럴) 프린트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유행하고 있다.

지난달 현빈과 결혼해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배우 손예진은 최근 한 의류 브랜드와 함께 한 화보로 플로럴 패션을 선보였다. 꽃무늬가 수놓아진 아웃도어 점퍼를 세련되게 소화했다. 손예진처럼 흰색 티셔츠, 블랙진 등 단순한 색깔의 의상을 받쳐 입으면 화려한 플로럴 프린트 의상도 촌스럽지 않게 소화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방탄소년단 뷁는 플로럴 프린트 셔츠로 멋을 냈다. 현지에서 팝스타 존 바티스트를 만난 그는 푸른색 바탕에 꽃무늬가 그려진 의상으로 '힙'한 감성을 드러냈다.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비비드 컬러로 개성을 살린 패션 센스가 돋보인다.

걸그룹 레드벨벳 예리는 플로럴 수영복으로 귀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챙겼다. 그가 최근 SNS로 공개한 사진에는 핑크색 꽃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수영복을 입은 채 야외에서 반신욕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따라 입고 싶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역시 K콤비!... '해피니스' OTT서 글로벌 역주행

글로벌 많이 본 넷플릭스 시리즈 7위 국내 방영때 시들했던 인기 뒤집어

'케이(K) 콤비'가 또 통했다. 방송 종영 4개월 만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된 드라마 '해피니스'가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막을 내린 한효주·박형식 주연 드라마 '해피니스'가 '글로벌 많이 본 넷플릭스 시리즈'

7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바레인·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에서는 경쟁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해피니스'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돼 티빙과 tvN을 통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부작으로 방영됐다. 감염병이 일상화한 시대를 배경으로 신종 전염병인 '광인병'에 감염돼 좀비처럼 변해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달 12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는



해피니스

국내 방영 당시 엇갈린 평가 속에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해외 시청자들은 감염병 시대를 배경이 안기는 현실적인 공포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콘텐츠 소개 사이트인 IMDb에는 "지난 2년간 모든 사람이 겪어온 일 때문에 극중 요소들이 역지스럽지 않고

진짜처럼 느껴진다." "감염병 대응행(팬데믹)의 요소를 공감할 수 있는 스릴러로 만들었다." "팬데믹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 등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

영화 '부산행'과 '킹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일명 '케이 콤비'의 잇단 세계적 인기를 잇는 흐름이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콤비 이야기가 세계 최고"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콜라يدر도 '해피니스'를 비롯해 '서울역', '곡성', '#살아있다', '창립', '좀비탐정', '기묘한 가족', '킹덤' 등 10편의 한국 좀비영화와 드라마를 집중 소개하며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작품들 덕에 콤비가 21세기의 떠오르는 영화적 감각이 됐다"고 썼다.

이승미 기자

성경은 쉽고 복음은 간단하며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증거되는 하나님 사랑의 약속이 사실임이 증거되고 선포되지 않고 성경 읽어 놓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 온 참혹한 결과는 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믿노라 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며, 사실은 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이미 결론 내신 쉬운 책입니다.

2.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로 말미암는 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 믿음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애써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롬 10장 2-3절)

종교에서 진리로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통으로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오후 3:30 / 주영광교회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36번지)

(사) 성경영성아카데미

대표 서종열 목사

010-5457-1009

예수복음특사선교회

총괄특사 원명구 목사
고문특사 진보라 장로

010-5337-3767